

완도군, 원도심 활성화 연계 도시재생 속도낸다

쉼터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특화사업도 추진

완도군이 시장상권 활성화, 집수리·쉼터 조성 등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읍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용암리와 서성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옛 문화원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을 통해 40억원을 투입, 리모델링해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 134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완도읍 중앙마을(중앙·주도·서성·용암리)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중심상권 활성화, 주민을 위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사업(집수리 23개소·빈집 철거 3개소)을 완료했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과 주차장에는 태양광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용암리와 서성리에는 CCTV 등을 설치해 안심 골목을 만들 계획이다.

중앙시장은 A동을 매입 철거했으며 통합 공공건물을 신축해 창업 활동을 원하는 청년층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한다.

상인과 방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시장 상권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로컬푸드 음식점(야외 포차) 조성으로 전통시장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철거된 청해시장 대신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낙후된 가로경관 정비, 불거리 제공 등으로 활력을 불어 넣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내리 옛 대중의원 부지에 각종 수목 식재, 의자와 정자 설치, 돌길과 흙길 등



완도군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집수리, 청소년상담센터 구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완도군 제공**

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힐링 쉼터'를 조성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사업과 해

양치유와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과 연계해 관광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생명존중 포스터 공모 해남군, 중학생 대상

해남군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생명사랑 생명존중 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관내 중학생으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자살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 달간 작품을 접수한다. 주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 삶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내용,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에 관한 내용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등 9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 9월 한 달간 전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남군보건소 마음건강팀(061-531-3740)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문화활동비 1인 20만원 지원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대상

진도군은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 이상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희·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영암 삼호주말장터 5000명 복직

스,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영암군이 지난 3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장한 삼호주말장터에 주민과 이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7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며 판매부

영암군 제공

진도군, 주민이 만드는 '진도형 도시재생' 박차

주민공동체 주도 문제 해결

진도군은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옥주골 어울림센터 열림식'에 이어 주민이 직접 만드는 진도형 도시재생 마을축제인 '옥주골 마을축제'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첫 거점공간인 옥주골 어울림센터는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치돼 있던 옛 진도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 해 지역 주민에 돌려주는 공간이다. 1층 '옥주골 하하호호놀이터'는 지역 초등생 20명이 어린이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기초설계과정에 참여해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어울림 프리마켓, 어울림 소통마당,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어린이 디자인단 및 꼬마해설사 결과물 전시, 도시재생대학 분과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전시 등을 선보인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배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도 축제 준비에 참여하면서 주민주도 축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옥주골 마을축제를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이달 말 마무리 된다"며 "일반근린형인 진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해 진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안심 먹는물 수돗물 생산 영암군,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법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영암군의 '적수(赤水·녹물)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 행안부와 지역정보개발원 공동주관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공감e가득은 디지털 기술에 주민참여, 민관협업 등을 더해 지역문제 해결과 활력 제고, 주민 불편 해소 등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다.

영암군 적수문제 솔루션은 상수도 수질분석에 IoT 기술을 도입해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시범지역 상수도에 센서를 부착해 탁도와 잔류 염소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수도관 교체 등 수질 정책의 근거자료로 삼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다. 영암군의 해법은 서류심사, 1차 발표심사, 컨설팅, 최종발표를 거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다.

영암군은 디지털플랫폼 사업 및 학술연구용역 전문기관인 '솔루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해남군, 전국 첫 캠핑카 시티투어 운영

1일 4만원... 목포역서 대어

해남군은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해남으로 가는 꿈카'는 캠핑카를 대어해 지정 관광지를 여행하고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핑카를 이용한 시티투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여행상품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이음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국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KTX 목포역에서 로디 캠핑카를 1일



4만원에 대여할 수 있으며 오시야오오 캠핑리조트, 황토나라테마촌, 땅끝오로 캠핑장 등 3개소의 야영장 내 전용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디 캠핑카는 기아차 레이를 캠핑카

형태로 만든 자동차로 2인승이다.

취사용품 세트나 캠핑의자 및 테이블 등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돼 있다.

꿈카 시티투어는 7일부터 개시했으며 카카오톡 채널에서 '꿈카' 또는 아이디 'kkumka'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후 예약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꿈카는 해남군 전용 캠핑카 시티투어로 GPS기반의 앱 활용을 통해 해남 이외 지역 체류시 패널티를 부여 기존 이용료 2배 이상 차량 렌트 비용으로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꼭 해남 여행에만 이용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미래문화 현악합주단' 버스킹 10일 목포 평화광장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목포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미래문화 현악합주단'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선 파란디아, 꽃의 왈츠, 진도아리랑 등 30명의 합주단원들이 클래식 현악합주와 국악과 가요공연이 함께한다.

'미래문화 현악합주단'에서는 목포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악기 연주 교육과 클래식, 국악 및 가요 공연을 진행하며 목포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꿈자락실현실 스튜디오 스페이스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노적봉 예술공원 등 목포시 전역에서 어린이들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강진군, 최대 240만원

강진군은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창업한 소상공인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요건 해당자에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6~30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인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강진=김윤복 기자**